

# 노송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이전

〈남원·임실·오수 방문〉

### 홈플러스 완산점 맞은편 기린로변으로... 오는 17일 6시 15분 첫차부터 하루 119회 운행

전주시 노송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기린대로 시청 인근으로 신축이 될 예정이어서 남원·임실·오수 방면 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 전주시는 병무청 네거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인근에 위치했던 노송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오는 17일 오전 6시 15분 첫차부터 홈플러스 완산점 맞은편 기린대로변(임산구 기린대로 175)으로 이전·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전주한옥마을 공

영주차장 인근으로 이전한 노송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승강장이 한옥마을에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등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노송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이전하면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차된 시외버스와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몰려든 차량으로 발생했던 인근 교통 혼잡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승객들은 기린대로를 오가는

수많은 시내버스를 갈아탈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는 새로 이전하는 간이정류소 승강장을 지역예술가들의 참여로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었다. 승강장 디자인에는 후백제 왕궁 터가 있던 곳이자 근대 전주역사(驛舍)가 위치했던 곳 현재는 전주 발전을 주도하는 전주시청이 위치한 노송동의 역사에 착안한 여우로움과 기백을

표현했다. 승강장 디자인 작업은 김누리 작가와 박승호 작가가 주도했고 제작과 설치에 예술로움과 협동조합원(김용환 이사장 외 5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지역 공공시설물에 심미적 요소를 가미해 도시공간을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와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역예술가들의 참여로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채규남 기자

## 환우를 위한 '행복 콘서트' 열어

### 전북대병원, 12일 한동문화예술단 재능기부 공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오는 12일 12시 30분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음악을 통해 환우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복 콘서트를 한다. 신년 첫 공연인 행복콘서트는 '한동문화예술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힐링의 자리다. 한동문화예술단은 2011년 한동교회 주일학생들로 구성,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드럼 등 악기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으로 이루어진 비영리정소

년문화예술단이다. 지역내 청소년들의 꿈나무기, 사랑나눔기 연주회 등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한 교육과 발표 기회제공,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봉사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한동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에서는 드라마 '하얀거탑'과 영화 '스팅'의 주제곡을 비롯해 '헝가리무곡', '라데츠키행진곡' 등 환우와 병원을 찾는 내방객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 도로제설작업 '총력'

전주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9일과 10일 시민들의 눈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및 교통통행 불편 줄이기에 집중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대책 및 장비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전주지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령 9.6cm(10일 오전 7시 기준)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기온이 영하 4℃ 이하로 내려가 도로가 얼어 붙었다. 특히 김 시장은 이른 새벽 팔복동을 방문해 도로제설 상황을 점검한 후 송촌2동 주민센터를 찾아 제설작업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주택가 이면 도로에 쌓인 눈을 함께 치웠다. 또 버스 주요노선을 돌면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채규남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가운데)이 10일 새벽 전주시 송촌동 제설작업 현장을 방문해 살포기와 제설용 트럭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함께 골목길 눈을 치우고 있다.

## 전주시, 전통신장 통계조사

전주시는 전통신장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통신장과 상점가의 시장경기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 등 전주지역 전통신장 6곳과 상점가 5곳을 대상으로 2018년 전주시 전통신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신장 및 상점가 구별별 구조와 판매·고용동향 분석 등 시장경기를 파악 향후 전통신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조사원 14명이 대상사업체를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 전북지역 폭설에 눈길 교통 사고 잇따라

### 10일 오후 1시 기준 교통사고 64건 발생... 임실 관촌 측사 비닐하우스 주저앉아

전북지역에 이틀에 걸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북은 임실 23cm, 진안 19cm, 장수 21cm, 고창 13cm, 남원 9.2cm, 전주 7.4cm, 순창 7cm, 김제 5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내에서는 크고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14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관촌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연쇄추돌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2개 차로를 통제해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극심한 정체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6시12분께 완주군 상관면 익산~장수 고속도로에서 4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단독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경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교통사고는 64건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임실군 관촌면 한 측사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는 피해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북에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최대 20cm까지 쌓일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현재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10일 오후 늦게부터 서해안 지역에서 눈구름이 발달하며 오는 12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다"며 "교통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삼민 기자

## 전북대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 시행

전북대학교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 시간 통제 등을 골자로 1월 1일부터 병문안 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병문안 개선 사업은 병문안으로 환자와 병문안객 모두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막고 환자 치료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함이다. 현재 시행중인 병문안 문화개선 사업은 △병문안 시간 통제 △병문안객 명부작성 △병문안 제한 대상 지정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병원은 총 14개의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고, 엘리베이터 앞 5곳도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출입증은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해당 층 외의 임의지역 출입을 금지한다. 병문안객의 장소별 병문안 허용시간은 일반병동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6시부터 8시

까지로 하루 2회로 제한한다. 중환자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다. 병문안은 온 방문객은 병문안 허용시간 외에는 전부 통제되며 병실입구와 병실 내에서 방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병문안 병실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산부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성질환자(발열, 설사, 복통, 구토 증상 감기, 결핵, 피부질환, 눈병 등) △항암치료 등 면역기능 저하자 △종교단체 친지 동맹회 등 단체방문객 등이다. 3인 이상 병문안객은 별도의 면회라운지(호흡기질환환자 1층 할리스커피숍, 분관 지하 1층 단킨도너츠와 푸드코트)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병원은 병원홈페이지와 병동내 플래카드와 배너, 원내 방송 등을 통해 병문안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 익산시 모텔에서 30대 여성 추락사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5층에서 A씨(35·여)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모텔 업주는 추락한 A씨를 발견해 곧장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모텔 객실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B(35)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A씨가 추락한 직후 모텔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B씨 등을 상대로 A씨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